

# 2023 영등포 한 책

**영등포 한 책이란?** 구민이 직접 올해의 주제를 추천하고, 함께 읽고 토론하며 영등포를 대표하는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온·오프라인 함께 읽기, 후보도서 저자 강연, 이곳저곳 북큐레이션 등 다양한 과정을 구민과 함께 하며 우리 구를 대표하는 책을 선정합니다.

## 2023 영등포 한 책 연간 일정

- 5월 한 책 주제 공모
- 6월 멘토 및 1차 후보도서 9권 선정
- 6~8월 온·오프라인 함께 읽기 및 최종후보도서 3권 선정
- 9월 최종후보도서 작가와의 만남 및 연계행사 운영
- 10월 영등포 한 책 구민투표 운영  
10월 21일 \_ 영등포 한 책 선포식 운영

## 올해의 주제 선정

올해 영등포 한 책 운영을 위해 구민들께서 총 108개의 주제를 추천해주셨고, 최종 3개의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!

- 돌봄** “우리는 책을 통해 나와 타인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” \_ 한♥선
- 소통** “소통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며, 우리는 서로 더 잘 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.” \_ 조♥진
- 지구** “자라나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고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제를 추천드립니다.” \_ 송♥현

평가위원 \_ 한 책 컨소시엄 도서관 사서 및 관장 11명

## 1차 후보도서 선정

- 돌봄**
  - 후보도서 1 『돌봄선언』 2021, 더 케어 콜렉티브
  - 후보도서 2 『공감의 반경』 2022, 장대익
  - 후보도서 3 『연결된 고통』 2023, 이기병
- 소통**
  - 후보도서 1 『우리는 아름답게 어긋나지』 2022, 노지양&홍한별
  - 후보도서 2 『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』 2023, 하재영
  - 후보도서 3 『가장 사소한 구원』 2015, 라종일&김현진
- 지구**
  - 후보도서 1 『탄소로운 식탁』 2022, 윤지로
  - 후보도서 2 『기후변화,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때』 2021, 레베카 현틀리
  - 후보도서 3 『물이 물려온다』 2021, 제프 구델

## 온, 오프라인 함께 읽기

각 분야별 멘토와 총 9번 만나 함께 읽고 토론하며, 최종후보도서 3권을 선정했습니다. 누적:101명 참여



**돌봄 멘토 : 노명우 교수**

현)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 
현)나은서점 대표  
대표저서: 『한줄 사회학』, 『세상물정의 사회학』



**소통 멘토 : 정문정 작가**

베스트셀러 작가  
전)대학내일 편집장  
대표저서: 『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』, 『더 좋은곳으로 가자』



**지구 멘토 : 강양구 기자**

현)TBS 과학재난팀 팀장  
엔네스티언론상, 녹색언론인상 수상  
대표저서: 『강양구의 강한 과학』, 『과학의 품격』



온라인 독서 플랫폼 <그름>을 활용하여 온라인 함께 읽기를 진행하였습니다.

## 최종후보도서 선정

함께읽기 참여자 투표 결과



올해의 한 책 최종 투표 일정

2023.10.5.~10.18

※온, 오프라인 투표 (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예정)  
최종 1권을 선정해주세요!

# 서로, 돌봄

최종후보도서  
①

공감은 편들어주기가 아닙니다.  
공감은 나의 시선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시선으로  
사물과 사안을 하는 관점이자 능력입니다.  
공감은 나의 편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장될수록 좋습니다.  
그래서 우리는 공감의 반경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

- 노명우 교수 추천사 -



『공감의 반경』 장대익 작가와의 만남

9/15 오후 7시 30분 | 대림도서관

## 함께읽기 참여자들이 뽑은 문장

편을 가른다는 것은 흔히 공감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.  
그런데 그 '편' 을 매우 잘게 쪼개보자.  
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쉬이고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질 것이다.  
여러 각도에서 여러 기준으로 잘게 쪼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

# 우리, 소통

최종후보도서  
②

〈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〉는 작가 하재영이 어머니의 생애사를 인터뷰하며  
그와 교차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공동회고록입니다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,  
누군가와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그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걸 깊이 이해했습니다.  
어쩌면 우리가 친밀하게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괴로운 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 
바로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서로 잘 모르고,  
서로를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마음. 이해와 사랑이 같지 않다는 것.  
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,  
이해하려 노력할 때 필연적으로 사랑은 커진다는 걸 이 책은 말해줍니다.

- 정문정 작가 추천사 -



『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』 하재영 작가와의 만남

9/19 오후 7시 30분 | 대림도서관

## 함께읽기 참여자들이 뽑은 문장

나에게 엄마는 낡은 관습을 상징하지 않는다.  
타인이 나를 비주체적 인간으로 내모는 상황에서도 주체적 인간이기를  
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의 상징이다.

# 함께, 지구

최종후보도서  
③

기후 위기를 둘러싼 수많은 얘기의 결론은 항상 우울합니다.  
가장 큰 이유는 보통 사람 처지에서 이 지구적인 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 탓이죠.  
영화 〈돈 룩 업〉에서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을 보통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.  
하지만, 기후 위기는 다릅니다. 우리가 식탁을 둘러싼 탄소의 사정을 알면 다른 선택,  
다른 실천 그리고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 
이 책은 그렇게 다른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줄 최고의 길잡이입니다.

- 강양구 기자 추천사 -



『탄소로운 식탁』 윤지로 작가와의 만남

9/21 오후 7시 30분 | 문래도서관

## 함께읽기 참여자들이 뽑은 문장

온실가스가 지구를 데운다는 건 합의나 가정, 묘사, 비유가 아니다.  
불행하게도 과학적 사실이다. 너무 많이 나온 다원자 분자들이  
공기 중에서 지구 복사에너지를 붙드는 한 기후 변화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.  
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.